

문화반응이론 기반 PCL-R 비교문화 연구 : 한국문화에서의 사이코패시는?

서종한*·이수정**·David J. Cooke***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사이코패시 진단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PCL-R의 국내 타당화를 목적으로 계량적 동일성 검증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영국과 한국 수용시설에서 수용중인 대단위 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화반응이론을 활용하여 문화, 요인, 검사 간 동일성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국내외에서 적용중인 13문항 3모델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고 어떤 문항에서 차별기능문화가 존재하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에서 일관성 혹은 비일관성 있게 변별력과 난위도에서 차이점을 보였고 특히 일부 요인 간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점을 보였다. 요인 1과 3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인 2는 문화적인 차이가 적게 나타났고 요인 1의 경우 두 문화 간 가장 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요인 2의 경우 가장 많은 정보와 변별력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사이코패시 진단에 임상적인 준거로써 활용치가 높을 것으로 사려 되었다. 차별기능문화에 문화적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중인 절단점에 대한 권고사항을 서설하였으며 사이코패시 진단의 경우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 주제어 : 사이코패시, 문화반응이론, 비교문화차이, 심리평가 문제, PCL-R

본 논문 분석에 도움을 주신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심리학과 Stephen D. Hart 교수님께 감사を 전함

* 교신저자: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심리학과, 법정신건강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심리학박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캘러도니언 글라스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I. 서론

한국에서 사이코패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중에 반구조화 된 임상 면담(semi-structured clinical interview)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도구는 PCL-R (Hare, 1991, 2003)¹⁾이다. 국내에서는 조은경과 이수정 (2008)²⁾이 타당화하여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오고 있다.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는 1991년 Hare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이 후 다양한 분야의 법정신건강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하여 오고 있는 상황이다(최이문 등, 2014). 이 도구는 원래 헤어(Robert D. Hare)가 클랙크리(Cleckley, 1976)³⁾와 다양한 기존 문헌(Karpman, 1961⁴⁾; Buss, 1966⁵⁾)을 바탕으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본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 후 [주로] 브리티시컬롬비아아주 교정기관에 수용중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대단위로 타당화가 진행되었다(Hare, 2003)⁶⁾.

<표 1> 사이코패시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항목	미국	캐나다	한국 (추정)
사이코패시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	1조 달러	996억 달러	1천억 달러 내외
사이코패시성격장애치료 직간접 비용	1천억 달러	1백억 달러	1백억 달러 내외

1. (비교집단) 정신분열로 인한 사회적 비용: 1조 2,500억 달러 (미국기준)

※ 전체 사회적 비용 중 13-15%

2. 사이코패시 성격장애 연루된 일반적 범죄, 폭력 범죄 비용, 정신보건 비용, 범법자에 대한 간접적 비용,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 수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사이코패시로 인해

1)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Hare, R. D. (2003).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2nd 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2) 조은경, 이수정 (2008). "한국판 표준화, PCL-R 전문가 지침서" 「심리검사연구소」, pp 259-295.

3) Cleckley, H. (1976). The mask of sanity Mosby, St. Louis, Mo.

4) Karpman, B. (1961). The structure of neurosis: With special differentials between neurosis, psychosis, homosexuality, alcoholism, psychopathy, and criminality. Archives of Criminal Psychodynamics, 4, 599-646.

5) Buss, A. H. (1966). Psychopathology. New York: Wiley.

6) Hare, R. D. 앞의 책 참고.

사회가 치러야 하는 경제적 용은 매년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범법자의 경우 추정컨대 10% 가량이 전생애 걸쳐(평생유병율) 사이코패시 기질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범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해 보면 전체 예산의 대략 10%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캐나다에서 사이코패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간접적으로 추산해 볼 때 996억 달러가 해마다 소요되고 치료를 위해 매년 10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Hart, 2012; Hart, 2015)⁷⁾. 미국의 경우는 더 심각해지는데 매년 1조 달러가 소요되고 5,000억 달러가 직접비로 5,000억 달러는 간접비로 소요된다. 사이코패시 성격장애 치료를 위해 매년 1,000억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Hart, 2015, Conference Proposal)⁸⁾. 위의 비용은 엄격하게 적용한 수치여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사이코패시 성격장애 연루된 일반적 범죄, 폭력 범죄 비용, 정신보건 비용, 범법자에 대한 간접적 비용,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였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보다 인구비율이 많지만 사이코패시 유병율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상보적 입장에서 캐나다와 비슷한 비용을 매년 치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이코패스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구성하는지 그 비율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북미와 유럽의 3분의 1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0.3-1%; 북미의 경우 1-3%; 여성 사이코패스 비율은 이에 3을 나누면 됨)⁹⁾. 매년 연쇄살인과 강도강간 등 장기 중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사회 이슈로 제기되며 빈번하게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출소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입소하게 되는 것이 반복이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7) Hart, S. (2012). New Direction for the psychopathy treatment. 2nd Bergen Conference on the Treatment of Psychopathy. Bergen, Norway; Hart, S. (2015). Violence in Korea. Annual KPA conference. Seoul, Korea.

8) Hart, S. (2015) 앞의 컨퍼런스 내용 발췌.

9) Jackson, R. L., Rogers, R., Neumann, C. S., & Lambert, P. L. (2002). Psychopathy in female offenders: An investigation of its underlying dimension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6), 692-704; Swanson, M. C. J., Bland, R. C., & Newman, S. C. (1994).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9(s376), 63-70; Cale, E. M., & Lilienfeld, S. O. (2002). Sex differences in psychopathy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and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8), 1179-1207.

이를 기반으로 한 심층 심리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을 효과성을 검증하여 한국 사이코패시 치료에 맞는 근거기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최근 국내에서는 교도소 내 [법 혹은 교정] 임상 심리학자들이 수용자의 재범위험성과 처우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중에 있다. 점차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사이코패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재판 과정 중 피고인에 대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형량 선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경찰청에서는 프로파일러들이 용의자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수사 과정과 범죄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교정분류심사,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등 교정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이외에 사이코패시의 신경생리학적 연관성을 밝히는 Raine (1993; Raine & Yang, 2006)의 연구, 그리고 사이코패시 진단 도구에 관한 Hare (1991)와 Levenson, Kiehl, 그리고 Fitzpatrick (1995)의 연구는 학계가 아니더라도 형사정책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¹⁰⁾.

하지만 국내에서 타당화 된 PCL-R이 타 문화권과 문항 간 어떤 차이점 (차별기능문항)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는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국외(북미)에서 개발되고 사용 중인 PCL-R 문항에서 동·서양 문화 간 차이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 혹은 임상적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평가 결과(문항과 절단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각 문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사이코패시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문화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10) Raine, A. (1993). *Psychopathology of crime*. Elsevier Science.; Raine, A., & Yang, Y. (2006). Neural foundations to moral reasoning and antisocial behavior.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3), 203-213;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51.

1. 사이코패시 개념과 PCL-R

가. 사이코패시 임상적 특성

이 등장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이다(최이문 등, 2014)¹¹⁾. 사이코패시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념·언어학적 수준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비사회성 그리고 소시오패스 성격장애와는 동의어다(Hart & Storey, 2013)¹²⁾. 결국 똑같은 성격장애를 명칭을 다르게 해서 부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비유컨대 똑같은 사람이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DSM-V에서는 분명 반사회적 성격장애라 명명되어 있고 ICD-10에서는 비사회성 성격장애라고 명명되어 있다. 사이코패시는 성격장애의 일종이며 부적응적 성격특질이라고 볼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¹³⁾;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¹⁴⁾)¹⁵⁾.

- 11) 최이문, 강태경, & 조은경. (2014). 미국 법원에서 심리학 도구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 PCL-R)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05~ 2012). 형사정책연구, 25(4), 375-414.
- 12) Hart, S. D., & Storey, J. E. (2013). Clinical and forensic issues in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 1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4th edn, Text Revision (DSM-IV-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 14)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The ICD-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clinical descriptions and diagnostic guidelines (Vol. 1). World Health Organization.
- 15) 최근, Hart, D., Cooke, D., Michie, C., Logan, Douglas, K., Guy, L., 등에 따르면 학자들 간에 일치를 보이고 있는 내용들로 이들 명칭(사이코패시, 반사회적 성격장애, 소시오패시 등)을 따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미국 및 캐나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사이코패시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례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Hart & Storey, 2013을 참고). 예초, 1913년 Emil Krapelin이 사이코패시를 7개의 범주(흥분을 즐기는, 불안정성, 충동적인, 자기중심적인, 거짓말에 능한, 안절부절못하는, 다투기 좋아하는)를 포함하고 있는 기질적 경향성으로 소개하였고 이후 1930년 Patridge가 처음으로 사회성과 관련시켜 소시오패시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1952년 APA(미국정신과협회)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이코패시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시오패스 용어(비슷한 명칭: 소시오패시 성격 손상 혹은 반사회적 반응)를 Pennington (1966)이 제안하여 이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1968년 DSM 개정판 이전에는 소시오패스적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 성격장애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후(1968년 이후 개정판 ~ DSM-V까지)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라 명칭만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코패시, 소시오패시,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결국 같은 개념을 둔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일부 학자들 예를 들어 Hare, Neumann (2007)은 이들 개념들 간 차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차츰 그 주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고 특히 [법]임상심리학 분야에서는 임상가들 간에 같은 개념을 두고 혼용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Hart와의 개인적인 대화). 이 주장은 최이문 등 (2014)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다.

사이코패시는 보편적으로 성격기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증상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주요 증상은 과거 200년 간 지속해서 논의되어 왔고¹⁶⁾(역사적 검토: Arrigo & Shipley, 2001¹⁷⁾; Berrios, 1996¹⁸⁾; Werlinder, 1978¹⁹⁾) 고전적 연구로는 Arieti (1963)²⁰⁾, Karpman (1961)²¹⁾, 그리고 McCord와 McCord (1964)²²⁾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에는 Cooke 등 (2004)²³⁾이 처음으로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 지금까지 출판된 사이코패시 문헌과 다양한 (법)분야의 정신보건 (임상)전문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들의 조언에 근거하여 사이코패시 특질과 관련된 형용사와 그 군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언어학적 모델(lexical model)인 사이코패시 성격장애 종합 평가(CAPP;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을 통해 사이코패시의 임상적 개념과 특질을 설명하려 하였다. 대표적으로 Hart (2009)²⁴⁾와 Cooke과 Hart (2007)²⁵⁾에 따르면 사이코패시는

-
- 16) Patrick (2006)에 따르면 1800년대 이미 사이코패시 성격장애라는 정신병리를 다루었으며 이 당시에는 정신병리를 나타내는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냈으나 정신장애 범주로는 분류되지 않았음; 19세기 Philip Pinel(프랑스 정신학자)에 의해 제기되었고 manie sans delire(잔혹함, 무책임, 비도덕성)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는 행동장애로 기술하였음; Patrick, C. J. (Ed.). (2005). *Handbook of psychopathy*. Guilford Press; Hare, R. D. (2003).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2nd 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17) Arrigo, B. A., & Shipley, S. (2001). The confusion over psychopathy (I): Histor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5(3), 325-344.
- 18) Berrios, G. E. (1996). *The history of mental symptoms: descriptive psychopathology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 Werlinder, H. (1978). *Psychopathy: A History of the Concepts: Analysis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Family of Concepts in Psychopathology* (Doctoral dissertation,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 20) Arieti, S. (1963). Psychopathic personality: Some views on its psychopathology and psychodynamics. *Comprehensive Psychiatry*, 4(5), 301-312.
- 21) Karpman, B. 앞의 연구논문 참고.
- 22) McCord, W., & McCord, J. (1964). *The psychopath: An essay on the criminal mind*.
- 23) Cooke, D. J., Michie, C., Hart, S. D., & Clark, D. A. (2004). Reconstructing psychopathy: Clarifying the significance of antisocial and socially deviant behavior in the diagnosi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4), 337-357.
- 24) Hart, S. D. (2009). Psychopathy, Culpability, and Commitment. *Mental Disorder and Criminal Law*, 159.
- 25) Hart, S. D., & Cooke, D. J. (2007).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E. Smolen, E. Ronningstam, & T. Millon (Eds.), *WPA/ISSPD educational program on personality disorders* (pp. 60-66). Geneva,

크게 6가지 영역인 ‘애착’, ‘행동’, ‘지배성’, ‘정서성’, ‘인지’, 그리고 ‘자기’에서 의미 있는 증상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애착’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력이 떨어지거나 무심 혹은 무정한 것을 말한다. ‘지배성’은 타인을 조종하고 기만적으로 대하면서 적대적인 양상을 보이며 지배하려 드는 것을 말한다. ‘행동’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무모함과 믿을 수 없는 행동, 문제를 일으키거나 공격적인 행동 양상을 말한다. ‘정서성’ 영역에서는 불안감이 결여되거나 감정 깊이와 안정성이 결여 되고 특히 죄책감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영역에서는 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중력과 계획성이 부족하며 사고 체계가 편협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영역에서는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고 과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정당화에 몰두한다.

나. PCL-R의 특징과 활용

PCL-R을 변안한 조은경과 이수정 (2008)²⁶⁾에 따르면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PCL-R은 각 문항 당 0에서 2점까지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 점수가 0점에서 40점 사이의 값을 갖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 지침서에 따르면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피검자와 관련 된 부수적 기록은 물론 반구조화 된 임상면담 방식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훈련과 사례감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록과 함께 면담의 내용, 피검자의 행동 관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PCL-R은 크게 2개의 요인과 4가지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요인은 2개의 단면 즉 대인관계와 정서성을 포함하고 있어 타인을 향해 죄책감이 결여, 냉담과 이기적인 요소로 기술된다. 2요인은 2개의 단면인 생활양식과 일탈적 행동 혹은 반사회적 행동 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은 일상에 쉽게 지루함을 느껴 자극을 추구하며 기생적인 생활 방식과 현실적인 목표가 부재하다. 뿐 만 아니라, 과거 문제행동과 비행 그리고 다양한 범죄력을 보이는 등 행동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판 PCL-R

Switzerland: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Retrieved from www.wpanet.org/education/docs/isspeduprogrammarch07.

26) 조은경, 이수정. 앞의 책(PCL-R 전문가 지침서) 참고.

표준화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시의 변별기준점을 25점 혹은 26점 정도로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PCL-R을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최이문 등, 2014; 고려진 등, 2016). 대표적으로 법원, 교정, 보호관찰, 경찰 시스템에서 PCL-R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법원에서는 흉악 내지는 엽기적인 범행을 한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요구에 의해 정신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PCL-R 검사를 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판단자(판사, 배심원)가 이를 참고하여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양형 과정에서도 참고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PCL-R 결과가 대체로 판례에서는 감경사유보다 형의 가중 사유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다(최이문 등, 2014)²⁷⁾. 특히 교정에서는 분류심사 단계에서 PCL-R을 실시하여 분류처우를 결정하거나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묻지마 범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이코패시 기질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CL-R을 실시하기도 한다. 기타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범죄자의 인성을 파악하거나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혹은 처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CL-R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일선 프로파일러들이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사이코패시 기질이 의심되면 PCL-R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의 패턴과 인성적 정보를 연결시켜 사건을 분석하려고 한다(공정식, 이수정, 2007). 사이코패시 범법자에게서 나타나는 범죄패턴이 일반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연일 벌어지는 엽기적인 범행에 대해 대안적인 해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측정 도구로 평가 받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PCL-R과 함께 K-SORAG(이수정, 2013²⁸⁾)와 성범죄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전자발지 부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최이문 등, 2014)²⁹⁾.

2. 사이코패시 비교·문화 연구

국내에서는 사이코패시 개념에 대한 비교문화차이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27) 앞의 연구논문 참고.

28) 이수정 (2013).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9) 최이문 등. 앞의 논문 참고.

있다. 사이코패시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북미와 유럽의 학자들이 발견한 개념(PCL-R의 경우 하향식(top-down)의 개념 구성을 채택을 위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구조적 동일성(structural equivalence)³⁰⁾을 넘어 20개 개별 문항에서 계량적 [동일성 혹은] 차이(metric equivalence)가 나타나지 않는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이코패시 개념의 구조적 동일성을 넘어 계량적 동일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L-R 사이코패시 평가를 가장 폭 넓게 활용하고 있는 영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외에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국가(영국, 캐나다, 미국, 이란 등) 간에 비교문화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다른 문화권에서 측정 도구 일반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계량적 동일성(metric invariance)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테면, 계량적 동일성이 있다면 서로 다른 개별 문화에서 보인 검사 점수가 중요한 잠재적 특성과 똑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계량적 동일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정 [사이코패시] 점수에서(예, 미국에서는 PCL-R 절단점이 30 점) 두 국가가 혹은 집단이 똑 같은 수준의 사이코패시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게 된다(Cooke & Michie, 1999; Cooke, Michie, Hart, & Clark, 2005a, b; Waller, Thompson & Wenk, 2000)³¹⁾.

현재까지 PCL-R 문항에 대한 계량적 동일성 관련 국내·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사이코패시 평가에 있어 분명 문화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최근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대표적으로 Cooke, Michie, Hart, & Clark, 2004; Cooke, Kosson, & Michie, 2001; Cooke et al., 2005b; Skeem, Edens, Camp, & Cowell, 2004; Ullrich, Paelecke,

30) 구조적 동일성과 관련 대표적 논문은 이수정 등 (2017) 혹은 이수정 등 (2016)의 논문을 참고 (앞의 논문 참고).

31) Cooke, D. J., Kosson, D. S., & Michie, C. (2001). Psychopathy and ethnicity: Structural, item, and test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in Caucasian and African American participants. *Psychological assessment*, 13(4), 531; Cooke, D. J., & Michie, C., Hart, S. D., & Clark, D. A. (2005a). Assessing psychopathy in UK: concerns about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 335-341; Cooke, D. J., Michie, C., Hart, S. D., & Clark, D. A. (2005b). Searching for the pan-cultural core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283-29; Waller, N.G., Thompson, J. S. & Wenk, E. (2000). Using IRT to separate measurement bias from true group difference on homogenous and heterogeneous scales: an illustration with the MMPI. *Psychological Methods*, 5, 125-146.

Kahle, & Marneros, 2003; Shariat et al., 2010; Boduszek & Debowska, 2016)³²⁾.

대표적으로 북미와 유럽 간 PCL-R 문항 평정을 비교 연구했던 주요 결과에서 계량적 동일성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Cooke et al., 2005b; Cooke and Michie, 1999)³³⁾. 특히 평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집단 간에 받아들여지는 사이코패시 수준의 변화가 원인 일 수도 있고 성격장애의 표현 양상 혹은 중요한 잠재적 특성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집단에서 해당되는 점수가 다른 집단에서는 비교적 낮은 [사이코패시] 수준을 나타낼 수도 있는 데 이런 점은 분명 사이코패시를 다른 문화권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론적 혹은 실질[임상]적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Cooke et al., 2004; Cooke, Kosson, & Michie, 2001; Cooke et al., 2005a)³⁴⁾.

이런 측면에서 문항반응이론 (item response theory) 분석은 이를테면, 북미에서 보이는 사이코패시의 중요 잠재 특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범죄자가 유럽에서 그와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범죄자 보다 PCL-R 총점에서 2 혹은 3점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유럽(영국 기준)에서는 북미보다 사이코패시 경향성을 이야기 할 때 40~50점도 낮게 절단점(cut-off score)을 잡고 있다(2017년을 기준으로 유럽의 경우 절단점이 [임의적으로] 주로 25점을 이루고 있음)³⁵⁾.

현재까지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큰 심리·계량적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대인관계’ 및 ‘행동’과 관련된 특성들인 반면 ‘정서’ 관련된 증상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Shariat 등 (2010)³⁶⁾이 PCL: SV (Hart, Cox,

32) Skeem, J. L., Edens, J. F., Camp, J., & Colwell, L. H. (2004). Are there ethnic differences in levels of psychopathy? A meta-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28, 505-527; Ullrich, S., Paelecke, M., Kahle, I., & Marneros, A. (2003). Categorical and dimensional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German offenders. Prevalence, gender differences and age factors. *Der Nervenarzt*, 74(11), 1002-1008; Shariat, S. V., Assadi, S. M., Noroozian, M., Pakravannejad, M., Yahyazadeh, O., Aghayan, S., & Cooke, D. (2010). Psychopathy in Iran: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4(5), 676; Boduszek, D., & Debowska, A. (2016). Critical evaluation of psychopathy measurement (PCL-R and SRP-III/SF)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4, 1-12.

33) Cooke 등. 앞의 연구논문 참고.

34) 앞의 논문들 참고.

35) 유럽에서 사이코패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켈러도니언 글라스고 대학의 Cooke 등과의 개인적인 대화(2017.11.20).

& Hare, 1995)³⁷⁾을 활용하여 351명의 카즈르(Qasr prison)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와 북미 수용자를 대상으로 문화반응이론을 통해 차별기능문화(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을 발견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증상은 3요인을 기준으로 ‘오만과 가식적 대인관계 유형’(요인1) 등과 관련된 증상이었다. 1요인과 관련된 항목 중 3개가 이란 집단에서는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저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란에서 문화적인 특징인 ‘타로프’(Taarof; Fathi, 2004)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존경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칭찬이나 아부를 하는 이슬람의 전통이다³⁸⁾.

Shou 등 (2017)이 삼원사이코패시측정(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TriPM; Patrick, 2014³⁹⁾)을 이용해 차별문화기능(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중국과 미국 집단을 비교했는데 두 집단에서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아 비교·문화적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시 특질 중 탈억제(disinhibition)와 비열함(meanness) 요인에서 미국집단보다 중국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변별도(discrimination)를 보였다. 이런 차이점의 이유는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예, 중국, 일본, 한국 등) 국가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더 통제하고 처벌적인 방식을 양육하거나 일탈적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Ng, Pomerantz, & Deng, 2014)⁴⁰⁾.

특히, 대담성(boldness) 척도 문화에서 DIF 문항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측면은 Yokota (2012)가 지적한 것처럼,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공개적 혹은 대담하게 내세우는 것은 타인을 효과적으로 통제 하는 데 문화적으로 적응적 전략 내지는 대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36) Shariet, et al. 앞의 논문 참고.

37) Hart, S. D., Cox, D. N., & R [obert] D. Hare. (1995).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PCL: SV)*. MSH-Multi-Health Systems, Incorporated.

38) Fathi, N. (2004). Taarof [Electronic version]. *Open democracy*. Retrieved September. 24, 2007, from http://www.opendemocracy.net/arts/article_2117.j.

39) 국내에서 서종한 등이 원저자와 계약을 맺고 타당화중에 있다; Shou, Y., Sellbom, M., & Han, J. (2016 b).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nes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0(4), 436-450.

40) Ng, F. F. Y., Pomerantz, E. M., & Deng, C. (2014).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85(1), 355-369.

왜냐면, 이런 자기우월감 혹은 지배성 등을 드러내는 독단적 방식은 사회 순응과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 문화권 국가에서는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으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억압되는 특성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상호호혜의 법칙’(Renging orienation; Shou, Sellbom, & Xu, 2017)에 따라 개별 행동 패턴이 규정되어 특정 범위에서 억압되며 한국에서는 나이와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회적 순서와 질서가 유지된다는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다고 본다⁴¹⁾.

비슷한 비교·문화적 맥락에서, Markus와 Kitayama (1994)의 주장처럼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차이점을 사이코패시 성격장애 측정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⁴²⁾. 대표적으로 Hofstede 등 (1991)과 Cooke 등 (2004)이 제시한 것처럼 북미의 경우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의 의존성과 화합 혹은 조화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⁴³⁾. 특히 한국의 경우 어떤 조직이나 가정 내에서의 [사회적] 순응이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함축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내적 강인성과 상당한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이라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타인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곤 한다(Uno, 1991)⁴⁴⁾. 따라서 사회적 일탈성과 충동성, 자기중심성, 무책임성 그리고 기생적 생활 방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지양되거나 배척되는 것이 사실이며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 부적응된 행동으로 공개적인 방식을 이용해 강한 지탄을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코패시 주요 증상에서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본질적인 변산성(차이점 혹은 유사점)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증상에서 일정부분 차이점을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41) Shou, Y., Sellbom, M., & Xu, J. (2017).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An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DOI: 10.1037/per0000241.

42)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68-579.

43)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Vol. 2). London: McGraw-Hill; Cooke D. et al. 앞의 연구 참고.

44) Uno, T. (1991) *Chinese Ideology*, Translated by H. Park. Seoul, South Korea: Daewon .

II. 방법론

1. 조사대상

가. 한국

한국자료는 38개의 기관에서 수용중인 재소자 1102명이었다. 구체적으로 교도소 20개, 구치소 6개, 10개는 지방보호관찰소, 그리고 나머지 2군데는 소년원이었다. 해당 기관이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경기, 충북, 경상, 전라 그리고 강원도였다. 전체 평균 나이는 38.3(SD=11.40)다. 과거 범죄경력 평균 횟수는 6.3회(중간값=5.0회; 범위: 0~35회)이다. 이들 대상자 중 26.3%가 중학교 졸업 이하였고 20.9%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보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본건 관련 죄명을 구분하면 살인 6.2%(132명), 성폭력 24%(468명), 상해 10.7%(120명), 강도 4.9%(88명), 절도 6.9%(107명), 그리고 사기 등 기타가 5.6%(100명)였다(대상자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이수정, 이동길, 위희정, 2015⁴⁵⁾을 참고).

나. 영국⁴⁶⁾

영국 자료는 총 1316 남자 성인 범죄자로 이루어져 있다(자세한 내용은 Cooke, Michie, Hart, & Clakr, 2005a, p.335을 참고)⁴⁷⁾. 대상자 선정 기관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위치한 HMPS (Her Majesty's Prison Service) 산하 7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중 무작위로 608명을 선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104명은 1995년에 Grendon 교도소에 입소한 초기 수용자였다(자세한 내용은 Hobson, Shine, 1998을 참조)⁴⁸⁾. 이들의 평균 나이는 32.6세였고

45) 이수정, 이동길, & 위희정. (2015).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PCL-R 2, 3, 4 요인 모형 타당성 검증. *한국범죄학*, 9(2), 3-32.

46) 본 연구의 영국 수용자 자료는 Cooke, Michie 등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들의 허락을 받아 대단위 raw data를 획득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자료를 분석하였음.

47) Cooke D. et al. 앞의 논문 참조

48) Hobson, J., & Shines, J. O. H. N. (1998). Measurement of psychopathy in a UK prison population referred for long-term psychotherap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8(3), 504-515.

95%가 백인, 5%는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 1% 아시아인, 그리고 기타 1% 순이었다. 이들 중 25%가량이 부정기형을 받았다. 재소자의 대부분은 (평균=6.85년) 2.5년에서 15년 사이의 형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스코트랜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46명의 재소자였다(자세한 내용은 Cooke, Michie, 1999를 참고)⁴⁹⁾. 105명은 초기 아동기 경력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스코틀랜드 출신 수용자였다(자세한 내용은 Marshall, Cooke, 1999를 참고). 평균 나이는 32.2세(SD=3.88)였고 최종 판결 형량 범위는 21년에서 60년 사이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평균형량=9.33; SD=3.88년. 대부분의 수용자는 양친 혹은 의붓 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평균 4.7명의 형제가 있는 큰 가족에서 나고 자랐다.⁵⁰⁾

2. 측정도구 및 평가방식

가. 사이코패시체크리스트-수정판(PCL-R 영문판, Hare, 2003; PCL-R 한글판, 조은경, 이수정, 2008)

영국에서 사용한 PCL-R 평가지는 영문판(Hare, 2003) 전문가 지침서와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여 교도소 교정 심리학자가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사용한 PCL-R은 2008년 번역 출간된 한국판 PCL-R 전문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였다. 이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서론 부분에 자세히 언급하였다. 조은경과 이수정(2008)에 따르면 PCL-R 전체점수 알파 계수가 .87로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각 요인별 알파 계수를 살펴보면, 정서성 .86, 대인관계 .73, 생활양식 .73, 그리고 반사회성 .63순이었다. Kappa 값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62에서 1.00 분포를 보여 평가자간에 일관성을 보였다⁵¹⁾.

이 평가도구는 크게 4가지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면 대인관계, 2단면 정서성, 3단면 생활양식, 그리고 4단면은 반사회성이다. 각 단면별 문항들로는 1단면

49) Cooke, D. J. & Michie, C. (1997). An Item Response Theory evaluation of Hare's Psychopathy Checklist. *Psychological Assessment*, 9, 2-13

50) Marshall, L. A., & Cooke, D. J. (1999). The childhood experiences of psychopaths: A retrospective study of familial and societ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3), 211-225.

51) 조은경, 이수정. 앞의 책자 참고.

은 입심 좋은/피상적 매력, 과도한 자존감, 병적인 거짓말, 남을 잘 속임/조종함, 2단면은 후회나 죄책감 결여, 얕은 감정, 냉담/공감 능력의 결여, 책임감 부재, 3단면은 자극추구, 기생적인 생활방식, 목표부재, 충동, 무책임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4단면은 행동통제력 부족, 어린 시절의 문제행동, 청소년 비행, 조건부 석방/유예의 취소, 다양한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Hare의 PCL-R 전문가 지침 (Hare, 2003)에서는 북미 남성 수용자와 치료감호소 범법자들의 표본에서 PCL-R 평균 점수를 각각 23.6점과 20.6점으로 보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30점을 사이코패시진단의 기준 점수로 적용하고 있다⁵²⁾. 하지만 유럽 국가 중 영국의 경우 이보다 낮은 25점을 적용하고 있다(Cooke & Michie, 1999)⁵³⁾. 국내의 경우 한국판 PCL-R 전문가 지침서에 따르면 25점을 적정 점수로 삼고 있지만 최근 연구(이수정 등, 2016; 이수정, 고려진, 김재경, 2009) 등에 따르면 26점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⁵⁴⁾. 하지만 PCL-R 기준점수를 결정하기 전에 북미와 유럽 국가 간 비교·문화적 검증 과정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기준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평가방식

두 개 국가에서 참여하였던 평가자들은 모두 원저자나 해당 전문가가 진행하는 PCL-R 워크숍을 이수 하였고 최소 3케이스 이상을 슈퍼비전을 받았던 연구자로 임상 장면에서 최소 5건 이상의 평가와 면담을 진행했던 전문가들이다. 양 집단 모두 [범죄 혹은 법] 심리학 석사과정[영국집단의 경우 석사학위이상] 이상의 학력과 심리학 과정에서 평가와 개입, 통계과정 등 필수과목을 이수하였다. 한국의 경우 2개의 대학기관에서 연구자 20명가량이 직접 면담에 참여하였고 영국의 경우 교정기관과 1개 대학에서 교정심리학자로 근무하거나 심리학과 연구원들로 30명가량이 평가에 직접 참여하였다. 영국에서 평가를 담당했던 모든 교정심리학자는 의무적으로 생명윤리규정에 따라 IRB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해당 주 IRB 심의 과정을 통과하였다.

52) Hare, R. 앞의 책자 참고

53) Cooke, Michie. 앞의 논문 참고

54) 이수정, 고려진, & 김재경. (2009).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의 구성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57-71; 고려진, 손세립, 한상국, & 이수정. (2016).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판 PCL-R 의 예측타당성 연구. 형사정책연구, 27(2), 263-291.

본 연구 과정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피검자를 면담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면담 과정은 반-구조화된 임상 면담 방식(SSCIT)을 적용하여 진행하였고 참가자에 개별 문항을 질문하여 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전에는 피검자의 공식적인 기록 이력테면 수용시설 내 동정관찰기록, 범죄 및 징벌 기록, 범죄경력기록 및 수사기록, 판결문, 그리고 수용소 생활특징, 분류심사평가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면담 내용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피검자에 대한 행동이나 거짓진술, 주변인 즉 교도관이나 상담전문가의 추가 진술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3. 분석방법

문항반응이론 모델은 문항 혹은 검사 점수와 개별 항목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적 특성(θ) 간 연관성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성태제 (2005)는 “문항 하나하나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 문항특성곡선(피험자 능력에 따른 문항 답을 정확하게 맞힐 확률을 보여주는 커브)에 의해 문항을 분석하는 검사이론이다”고 하였다(p. 464)⁵⁵⁾. Binet 등 (2001)에 따르면 문항의 특성인 문항모수 즉 문항난이도(문항이 어느 능력 수준에서 가능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문항의 어려운 정도; 성태제, 2001), 문항변별도, 문항 추측도를 제시해 준다고 하였다⁵⁶⁾. 구체적으로, 다양한 집단 간에 나타나는 차별기능문항(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 혹은 차별기능검사(DTF; Differential Test Function)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전자의 경우 [사이코패시] 증상[혹은 문항]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변별력이 있을 때 혹은 한 집단에서 다른 극한성(extremity) 혹은 난위도 수준을 보일 때 발생할 수 있다. 문항기능반응(GRM)이 있을 경우, 이력테면 문항점수와 잠재적 특성 간 연관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경우 DIF가 있다고 본다(Tay et al., 2015)⁵⁷⁾.

후자의 경우 전체 검사 점수가 똑 같은 수준의 중요한 특질에서 다른 집단에 비

55) 성태제. (2005). 교육 평가.

56) 성태제. (2001). 문항반응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57) Tay, L., Meade, A. W., & Cao, M. (2015). An overview and practical guide to IRT measurement equivalence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8(1), 3-46.

해 한 집단에서 더 변별력이 있거나 더 높은 극한성을 보이는 경우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반응이론 모델은 *Samejima's graded model*이다(GRM; Samejima, 1997; McDoanld, 1999; Cooke & Michie, 1997, 2001; Cooke et al., 2005a, b)⁵⁸⁾.

문항(검사)특성곡선의 위치와 모양은 세 가지 모수인 a , $b1$, $b2$ 로 표현된다(Thissen, 1991; Thissen & Steinberg, 1997)⁵⁹⁾. a 모수는 기울기(slope) 지수이인데 크면 클수록 해당 증상이 장애에 대해 보다 나은 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b 모수는 난위도(difficulty) 혹은 극한성(extremity)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지수가 크면 클수록 해당 [사이코패시] 증상이 명백하게 나타나기 전까지 그 장애가 더 두드러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 적용을 위해 IRTPRO(Cai, Thissen, & du Toit, 2011)을 사용하였다⁶⁰⁾.

III. 결과

분석에 앞서, <표 2>는 두 집단 간에 나타나는 점수를 기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문항, 요인, 전체점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범죄력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 요인, 그리고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기생적 생활방식, 어릴 때 문제행동, 청소년 비행, 조건부 석방 및 유예의 최소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는 한국집단이 영국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58) Samejima, F. (1997). Graded response model. In Handbook of modern item response theory (pp. 85-100). Springer New York; McDonald, R. P. (1999). *Test theory: A unified treatment*. Mahwah, NJ: Erlbau.

59) Thissen, D. (1991). *Multilog User's Guide (Version 6)*. Moo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Thissen, D. & Steinberg, L. (1997). *A response model for multiple-choice items* (pp. 51-65). Springer New York.

60) Cai, L., Thissen, D., & du Toit, S. H. C. (2011). *IRTPRO for Windows* [Computer software]. Lincolnwood,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표 2〉 PCL-R 문항, 요인, 총점 집단 간 기술통계적 차이

문항	집단	평균	표준편차	t-test
1. 입심좋은/피상적매력 ¹	한국	.94	.788	$t=22.681^{***}$
	영국	.31	.572	
2. 과도한 자존감 ¹	한국	1.00	.786	$t=18.635^{***}$
	영국	.44	.684	
3. 자극욕구/쉽게 지루해 함 ³	한국	1.13	.811	$t=8.119^{***}$
	영국	.87	.782	
4. 병적인 거짓말 ¹	한국	.90	.761	$t=13.216^{***}$
	영국	.51	.697	
5. 남을 잘 속임/조정함 ¹	한국	.93	.812	$t=5.854^{***}$
	영국	.74	.743	
6. 후회 및 죄책감 결여 ²	한국	1.28	.750	$t=5.847^{***}$
	영국	1.09	.791	
7. 얕은 감정 ²	한국	.89	.775	$t=7.487^{***}$
	영국	.65	.746	
8. 냉담/공감능력 결여 ²	한국	1.09	.796	$t=12.930^{***}$
	영국	.68	.738	
9. 기생적 생활 방식 ³	한국	.71	.808	$t=-4.663^{***}$
	영국	.86	.717	
10. 행동통제력 부족	한국	1.35	.718	$t=13.509^{***}$
	영국	.93	.822	
11. 문란한 성생활	한국	.93	.861	$t=2.678^{**}$
	영국	.84	.853	
12. 어릴 때 문제행동	한국	.60	.805	$t=-5.649^{***}$
	영국	.79	.865	
13.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³	한국	.95	.777	$t=2.348^{*}$
	영국	.87	.826	
14. 충동성 ³	한국	1.33	.707	$t=13.334^{***}$
	영국	.91	.795	
15. 무책임성 ³	한국	1.17	.765	$t=6.378^{***}$
	영국	.98	.733	
16.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못느낌 ²	한국	1.23	.809	$t=8.006^{***}$
	영국	.98	.729	
17. 여러 번의 혼인관계	한국	.26	.594	$t=-9.053^{***}$
	영국	.53	.793	
18. 청소년 비행	한국	.64	.816	$t=-13.333^{***}$
	영국	1.10	.853	
19. 조건부 석방 혹은 유예의 취소	한국	.53	.786	$t=-14.572^{***}$
	영국	1.05	.900	

문항	집단	평균	표준편차	t-test
20. 다양한 범죄력	한국	1.10	.883	$t=.824$
	영국	1.07	.862	
요인1: 오만함과 가식적인 대인관계	한국	3.77	2.414	$t=19.791^{***}$
	영국	2.00	1.977	
요인2: 정서 경험 결핍	한국	4.48	2.625	$t=10.738^{***}$
	영국	3.41	2.282	
요인3: 충동적 및 무책임한 행동 양식	한국	5.29	2.725	$t=7.351^{***}$
	영국	4.49	2.656	
전체점수	한국	13.54	6.254	$t=15.196^{***}$
	영국	9.89	5.539	

*p < .05, **p < .001, ***p < .000; 1-요인1, 2-요인2, 3-요인3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최근까지 3모텔(위계모형)이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13문항에 대해 문화반응이론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3모텔 적합도 근거는 다음의 논문 참고: 이수정 등, 2017; 이수정 등, 2015; Cooke et al., 2005a, b; Cooke, Michie, & Skeem, 2007; Shariat et al., 2010; Sohn & Lee, 2016; Sohn & Lee, 2017; Storey et al., 2016; Cooke & Logan, 2015; Boduszek & Bebowska, 2016)⁶¹⁾.

가장 먼저, 두 집단 간 13문항을 바탕으로 비제약 기준(unconstrained baseline) 즉, 두 집단 간 모든 문항모수와 잠재특성 평균 수준을 다르게 하였다. 그리고 a 모수를 모두 동일하게 제약하고 카이제곱 변화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유의미한 증가가 발생했다($\Delta\chi^2(13, n = 2418) = 552, p < .0001$). 결국 두 문화 간에 문항의 변별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에 따라 이 장애가 다른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비제약 기준에서의 모수(a , $b1$, $b2$)와 잠재

61) Sohn, J. S., & Lee, S. J. (2016). Investigating two-, three-, and four-factor structures of the Korean PCL-R in serious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0(6), 725-738; Sohn, J. S., Lyons, P., Menard, S., & Lee, S. J. (2017). Testing the three-and four-factor models of the Korean version PCL-R as predictors of two antisocial outcomes-recidivism and risk. *Psychology, Crime & Law*, 23(5), 472-486; Cooke, D. J. & Logan, C. (2015). Capturing clinical complexity: Towards a personality-oriented measure of psychopath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4), 262-273; Boduszek, D., & Debowska, A. (2016). Critical evaluation of psychopathy measurement (PCL-R and SRP-III/SF)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4, 1-12

특성 평균값(θ)은 <표 2>의 결과와 동일).

<표 3> 13문항 (위계적)모델 근거 DIF 분석 결과

PCL-R 문항	<i>a</i>			<i>b_{i-2}</i>					<i>Total</i> $\Delta \chi^2$
	한국	영국	$\Delta \chi^2$	한국	영국	$\Delta \chi^2$	$\Delta \chi^2$		
1. 입심 좋음/ 피상적 매력 ¹	0.82	1.40	18.1***	-0.91	1.30	0.34	1.80	191.6***	209.7***
2. 과도한 자존감 ¹	1.50	1.56	0.1	-0.74	0.75	-0.02	1.08	91.8***	91.9***
3. 자극욕구/쉽게 지루해함 ³	1.25	1.51	3.8	-1.03	0.40	-1.05	0.33	3.5	7.3
4. 병적인 거짓말 ¹	1.23	1.60	6.6	-0.68	1.16	-0.24	1.02	29.2***	35.9***
5. 남을 잘 속임/조종함 ¹	1.35	1.65	4.5	-0.54	0.84	-0.83	0.59	21.2***	25.7***
6.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²	3.18	2.08	18.5***	-1.04	0.11	-1.33	-0.20	25.5***	44.0***
7. 얕은 감정 ²	2.21	2.15	0.1	-0.44	0.85	-0.59	0.52	23.9***	24.0***
8. 냉담/공감 능력의 결여 ²	2.83	2.53	1.5	-0.69	0.40	-0.66	0.46	1.0	2.5
9. 기생적인 생활방식 ³	0.96	1.07	0.9	0.05	1.52	-1.35	0.91	197.8***	198.7***
13.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³	0.89	1.27	10.4***	-0.93	1.26	-0.95	0.29	45.1***	55.5***
14. 충동성 ³	0.97	1.26	5.8	-2.20	0.15	-1.17	0.32	48.4***	54.2***
15. 무책임성 ³	1.26	1.24	0.0	-1.29	0.45	-1.54	0.43	7.4	7.4
16.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못 느낌 ²	2.41	1.22	42.5***	-0.87	0.10	-1.58	0.43	24.6***	67.1***

노트 1. 모든 문항은 DIF를 위해 분석(Conditional on population distribution estimates obtained with all items constrained equal); PCL-R 문항 영문표기: 1.Glibness/superficial charm, 2.Grandiose sense of self-worth, 3.Need for stimulation, 4. Pathological lying, 5.Conning/manipulative, 6. Lack of remorse or guilt, 7. Shallow affect, 8.Callous/lack of empathy, 9. Parasitic lifestyle, 13. Lack of long-term goals, 14. Impulsivity, 15. Irresponsibility, 16. Failure to accept responsibility.

노트 2. *p < .05, **p < .001, ***p < .000; Δ 는 한국과 영국 집단 간 모수 차이; 1-요인1, 2-요인2, 3-요인3

다음으로, Cooke, Michie, Hart와 Clark (2005a,b)⁶²⁾가 제안한 바와 같이 b_i 과 b_e 모수 수준에서 비교·문화적 차이점이 가장 작은 문항을 기준으로 선정하려 했고 이를 근거로 기준점(anchors)으로 잡았다 (<표 3> 참고). 최종적으로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기준점 구체적으로 3요인에 문항3 ‘자극욕구/쉽게 지루해함’ 그리고 문항15 ‘무책임성’, 그리고 2요인에 문항2 ‘냉담/공감 능력 결여’이다. 두 집단 간 기준점인 3문항을 제약한 이후 카이자승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Delta \chi^2(9, n = 2418) = 13, ns$).

62) Cooke et al. 앞의 논문(방법론 부분) 참고.

〈표 4〉 13문항 제약모델 근거 문화반응이론 모수

PCL-R 문항	한국			영국		
	<i>a</i>	<i>b₁</i>	<i>b₂</i>	<i>a</i>	<i>b₁</i>	<i>b₂</i>
1. 입심 좋음/ 피상적 매력 ¹	0.67	-0.38	2.33	1.17	1.14	2.88
2. 과도한 자존감 ¹	1.23	-0.18	1.65	1.31	0.70	2.01
3. 자극욕구/쉽게 지루해함 ³	1.12	-0.52	1.20	1.12	-0.52	1.20
4. 병적인 거짓말 ¹	1.01	-0.10	2.16	1.33	0.45	1.95
5. 남을 잘 속임/조종함 ¹	1.10	0.07	1.77	1.37	-0.26	1.44
6.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²	2.56	-0.55	0.86	1.78	-0.85	0.49
7. 얕은 감정 ²	1.79	0.19	1.78	1.82	0.03	1.35
8. 냉담/공감 능력의 결여 ²	2.23	-0.08	1.24	2.23	-0.08	1.24
9. 기생적인 생활방식 ³	0.79	0.79	2.59	0.89	-0.88	1.83
13.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³	0.73	-0.41	2.27	1.06	-0.40	1.08
14. 충동성 ³	0.79	-1.95	0.92	1.03	-0.67	1.13
15. 무책임성 ³	1.01	-1.02	1.27	1.01	-1.02	1.27
16.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못 느낌 ²	1.95	-0.33	0.85	1.04	-1.14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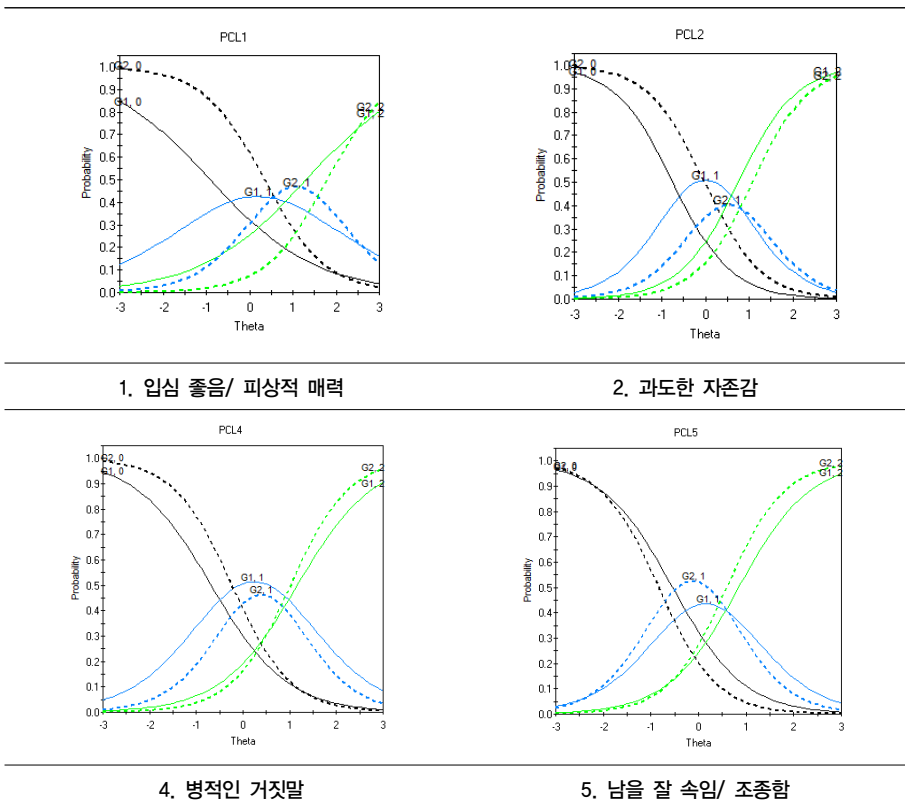
노트 1. Anchors(두 집단 간 차이 없이 기준이 되는 문항): 문항 3, 8, 15; 1-요인1, 2-요인2, 3-요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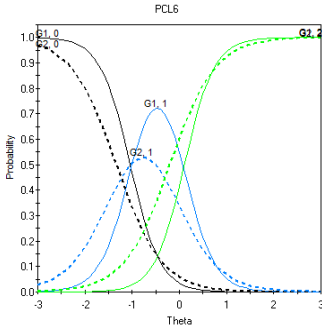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기준 문항(anchors) 제외한 나머지 문항 특히 6문항에서 기울기(slope)와 극한성(extremity) 측면에서 가장 명백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테면, 1요인 중 문항1 ‘입심 좋음/피상적 매력’과 문항2 ‘과도한 자존감’, 2요인 2중 문항16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못 느낌’ 그리고 3요인 중 문항9 ‘기생적 생활방식’, 문항13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부재’ 등이다.

다시 말해, 두 집단 간 똑 같은 점수(possibility)를 보일 때, 6개 문항은 (사이코패시) 특성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높던지 혹은 낮던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집단과 비교했을 때, 문항1 ‘과도한 자존감’과 문항13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기울기는 영국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별력(discriminatory power)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문항16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별력을 보이고 있어 영국 집단에서 진단과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또한 그림1에 제시된 것처럼, 문항2 ‘과도한 자존감’과 문항7 ‘얕은 감정’은 변별력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문항1과 문항2는 똑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밖으로 표출되는 정도(점수)가 상대적으로 한국이 영국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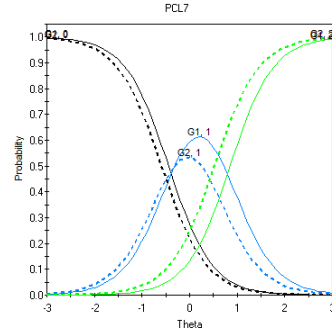
보였다. 이 점 또한 문화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논의 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특이한 점은 문항16인데, [사이코패시] 증상의 정도가 강할수록 한국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낮아질수록 반대로 영국집단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이외의 문항(4, 5, 6, 9, 13, 14)에서는 전체적으로 영국집단에서 똑 같은 [사이코패시] 잠재적 특성 수준에서 높은 [평가; 확률] 점수를 보여 두 집단 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1] PCL-R 차별가능문항(DIF) 문항특성곡선(I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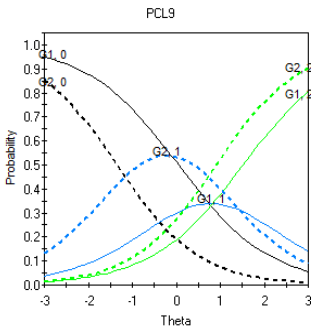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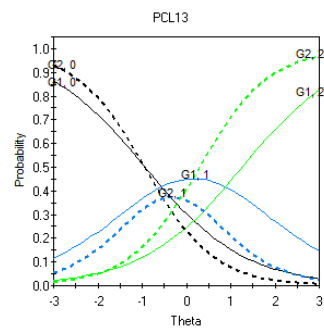
6.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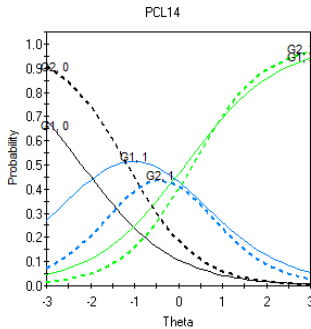
7. 얕은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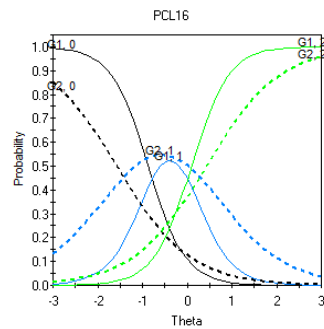
9. 기생적인 생활방식



13.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14. 충동성



16.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못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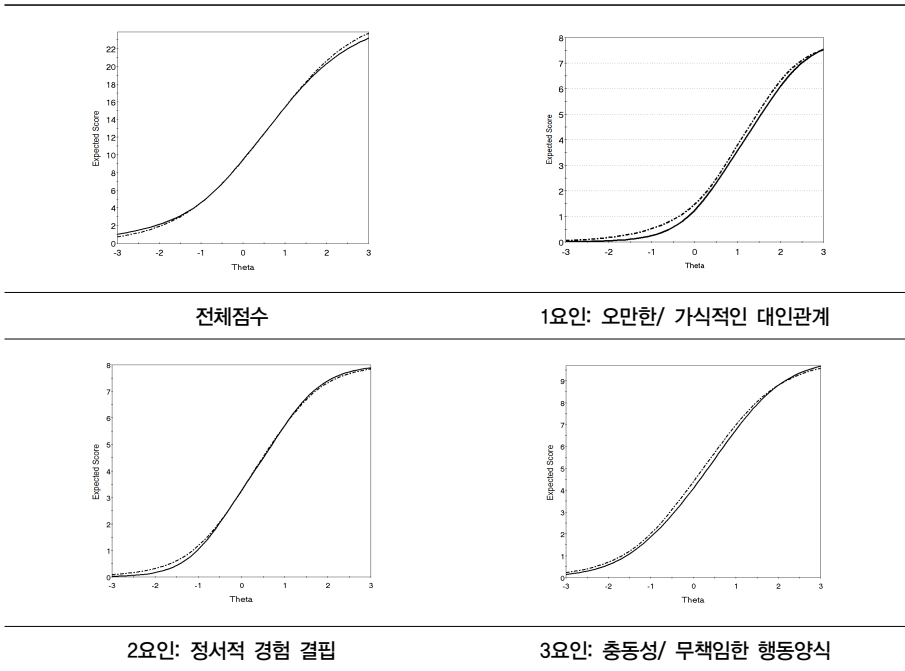
노트.. ICC Item Characteristic Curve: 한국(실선; G1) v. 영국(점선; G2)

[그림1]에 제시된 것처럼, 차별기능검사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특성곡선(TCC)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잠재적 특성(θ)과 [PCL-R] 점수 간에 관련성이 양쪽 문화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 같은 수준의 θ 를 기준으로 잠재적 특성 [혹은 특질]이 낮아질수록 영국집단보다 약간 높은 전체 점수를 획득하였고 반면 높아질수록 영국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PCL-R 점수 분포를 보였다.

이와는 별도로 원점수 단위 수준에서 양 집단의 TCC 평균 차이를 나타내는 r-DTF(root-Differential Test Function; Roju, Van der Linden, & Fleer, 1995)⁶³⁾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r-DTF는 .164로 나타났고 평균 점수는 .111, 표준편차는 .015 그리고 효과는 .918이었다.

[그림 2] PCL-R 전체점수 특성곡선과 요인별 검사특성곡선(T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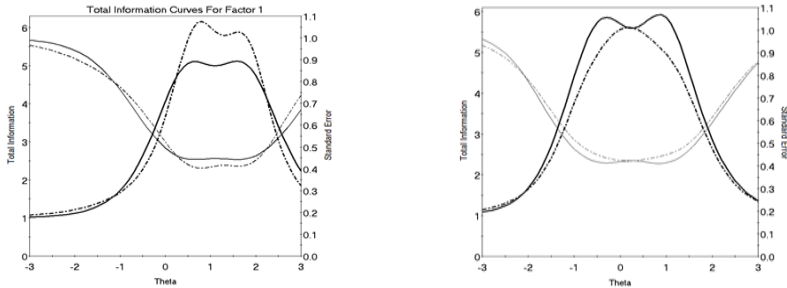
노트 TCC(Test Characteristics Curve): 검사특성곡선; 한국(실선; G1) v. 영국(점선; G2)

이와 함께, 각 요인별 TCC도 살펴보았다. [그림2]에서 제시된 것처럼, 집단과는

63) Roju, N. S., Van der Linden, W. J., & Fleer, P. F. (1995). IRT-based internal measures of differential functioning of items and test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4), 353-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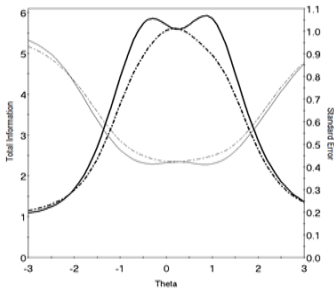
상관없이 요인2 TCC가 가장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곡점에서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보였다. 반면, 요인1 TCC는 잠재특성 평균값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비교적 잘 변별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낮은 수준에서는 변별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 특질 혹은 관련 증상에서 높은 PCL-R 점수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시를 측정할 때는 이 요인에서는 특별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요인3 TCC는 낮은 수준의 잠재적 특성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변별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체적으로, 두 집단 간(한국 v. 영국) 문화적 차이 점 측면에서는 요인2가 가장 적은 반면, 요인1의 경우 가장 두드러져 보였고 요인3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는 듯 보였다. 특히 이런 패턴은 현재 학자들에 의해 추천되는 ‘진단 절단점(cut-off score)’ 주변의 점수 분포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그림 3] 요인별 정보함수곡선(IFC)



1요인: 오만한/ 가식적인 대인관계

2요인: 정서적 경험 결핍



3요인: 충동성/ 무책임한 행동양식

노트. 오목 선은 표준오차(SD)를 나타냄; 한국(실선; G1) v. 영국(점선; G2)

[그림 3]에서 제시된 것처럼, 측정도구(measurement)의 정확도(precision)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요인별 정보함수(information function)를 계산했다. 정보함수는 개인능력을 측정하는데 문항 혹은 검사 유용성(개인을 정확히 구분; 예를 들어 어려운 문항[증상]은 고능력자 수준에서 유용하고 쉬운 문항[증상]은 저능력자 수준에서 유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요인별 정보함수는 요인1은 4문항, 요인2는 4문항, 요인3은 5문항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 정보함수의 합을 나타낸다. 요인1의 경우 높은 잠재적 특성 수준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즉 요인1의 경우 사이코패시 증상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정확히 사이코패시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오만한/기만적인 대인관계 양식’은 한국보다는 영국 문화에서 더 많은 수준의 요인정보 유용성을 보였다.

요인2의 경우 중간 수준의 잠재적 특성 수준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비록 ‘정서 경험 결핍’ 요인에서는 두 문화 간에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 문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중간 수준의 사이코패시 특성을 구분해 내는데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인3의 경우는 다른 두 요인보다도 더 많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특성 수준에 상관없이 많은 정보(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이코패시 증상의 진단과 평가 과정에서 요인3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IV. 논의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영국 양 문화 간 일정부분 사이코패시 표상의 계량적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임상적 측면과 심리측정 측면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교·문화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문항특성곡선과 검사특성곡선의 기울기 즉 문항과 검사점수의 변별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두 문화 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 차이는 존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항반응곡선과 검사반응곡선 절편, 즉 문항과 검사점수의 극한성 혹은 난위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개별적으로 난이도 모수(difficulty parameters)를 살펴 본 결과, 요인1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반면 요인2에서는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전체 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문항과 3개 요인들 그리고 검사특성곡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요인2가 두 집단 간에 가장 작은 차이점을 보인다. 이점은 앞선 대부분의 연구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Cooke & Michie, 1999, 2001; Cooke, Kosson, & Michie, 2001; Cooke et al., 2005a, b; Shariat, 2010)⁶⁴).

[임상] 진단적인 정보 측면에서는 문항특성곡선과 검사특성곡선의 기울기 모수 등을 종합해 보면 가장 변별력이 있는 증상이 모든 장애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진단적인 정보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요인2가 가장 좋은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고, 요인1이 다음으로 높은 변별력을 마지막으로 요인3 ‘충동적 및 무책임한 행동 양식’이 가장 낮은 변별력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적 측면에서는 ‘정서성’ 증상이 일반적으로 가장 진단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법 임상 전문가들이 임상적 진단을 내릴 때는 정서성과 관련된 것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Susser (1973)과 Cooke 등 (1999)에서 주장한 것처럼 어떤 증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문화적 효과는 대인관계나 행동과 관련된 증상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정서성과 관련된 증상은 가장 낮다고 제시한 바 있다⁶⁵). 그리고 Weisz, Suwanlert 등 (1987)이 제기한 ‘문화촉진모델’(cultural facilitation model; McCarty, Weisz, Wanitromanee, Eastman et al., 1999)에 따르면 각 개별 문화 내 복합적인 사회화 과정이 대인관계 행동의 표현 내지는 발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사회화와 문화화가 특정 형태의 행동과 성격장애를 형성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이코패시가 문화 간 생활양식과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혹은 모델로 적용되기도 한다⁶⁶). 최근에는 아시아국 중에 이란 수용자와 영국수용자 집단 간에 문화반응

64) 앞의 논문들 참고.

65) Susser, M. (1973). Causal thinking in the health sciences concepts and strategies of epidemiology. In *Causal thinking in the health sciences concepts and strategies of epidemiology*.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66) Weisz, J. R., Suwanlert, S., Chaiyasit, W., & Walter, B. R. (1987). Over-and undercontrolled referral problem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the wat and wai of cultural differ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9;

이론을 적용하여 DIF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요인은 요인1이었다(Shariat et al., 2010)⁶⁷⁾.

1. 한국문화의 독특성과 사이코패시 발현.

본 연구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별기능문항은 6개 정도로 볼 수 있다. ‘입심 좋음/ 피상적 매력’, ‘과도한 자존감’, ‘기생적 생활방식’,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충동성’,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못 느낌’ 등이 두 문화 간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Hofstede 등 (1991)의 제시한 ‘문화차원이론’(cultural dimension theory; Hofstede, 2001, 2010)에 따른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영국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남을 보고하고 있다. 첫째로 권력 거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는 일반(평범한) 사회 구성원들이 권력이 집단 내에서 불평등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국 사회에는 다분히도 위계적인 사회 체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시스템 속에 내재적 불평등함과 중심화를 허용적으로 인지하며 받아들이려는 경향성이 영국보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강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개별 집단 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윗사람에 대한 위계적 사회관계를 지속해 주기를 기대 받게 된다. 이런 문화적 분위기는 타인에 대해 가식적인 태도 즉 과도한 자존감을 보이며 인상을 관리하거나, 아침 등을 위해 말을 많이 하거나, 피상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등의 대인관계 양상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빠르게 사회적 유대감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혹은 권장·지속·촉진(facilitate)되고 있는 바이다(Kitayama & Uchida, 2005)⁶⁸⁾. 이런 측면은 서아시아 이란의 ‘타로

McCarty, C. A., Weisz, J. R., Wanitromanee, K., Eastman, K. L., Suwanlert, S., Chaiyasit, W., & Band, E. B. (1999). Culture, coping, and context: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among Thai and American youth.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5), 809-818.

67) 앞의 논문 참조.

68) Kitayama, S., & Uchida, Y. (2005). Interdependent agency: An alternative system for action. *In Cultural and social behavior: The Ontario symposium* (Vol. 10, pp. 137-164). Lawrence

프'(Tarrof, Fathi, 2004)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권위 있는 윗사람에 대해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존경과 믿음을 표하기 위해 온갖 [특히 언어적 방식으로] 아침과 아부를 떠는 형식이다⁶⁹⁾. Shariate 등 (2010)과 Billiound와 Joe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문화 특징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타이완 등)에서도 권장되고 있다고 하였다⁷⁰⁾.

두 번째로, 한국 사회는 영국보다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더 느끼고 있다(Hofstede, 1991)⁷¹⁾. 한국은 OECD 33개 국가 중 국민들이 사회적 모호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⁷²⁾. 따라서 사회적 안정성이 개인 동기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개인의 일탈성과 관련된 충동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촘촘한 사회적 규칙을 만들어 규제하거나 기생적 방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 견디기 힘들어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 목적-지향성 즉 현재와 미래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적 행동은 영국보다 훨씬 더 높다(Hofstede, 2010)⁷³⁾.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 계획과 책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문화적 특징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국가에서는 자연히도 개별 행동에 대한 무책임함과 충동성을 그 잣대로 평가하며 사회로부터 억압시키거나 도태시키려는 경향성이 있다(Yamagishi, Hashimoto, & Schug, 2008)⁷⁴⁾.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는 개인의 욕구와 충동성을 통제하려는 수준 즉 사회적 느슨함(indulgence)이 영국보다 상당히 낮다(Hofstede, 2010). 이를테면 Hofstede 등 (1991)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제약(social restrains and rules)을 가지고 있으며 ‘다름’이나 ‘차이’를 바라보는 한국사회는 냉소주의와 비관주의로 일색 되어 있는 상황이라

KaErlbaum Mahwah, NJ

69) 앞의 논문 참조

70) Billioud, S. & Joel T. (2015). *The Sage and the People: The Confucian Revival in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71) 앞의 논문 참조

72) Hofstede (1991). 앞의 논문 참조

73) 앞의 논문 참조

74) Yamagishi, T., Hashimoto, H., & Schug, J. (2008). Preferences versus strategies as explanations for culture-specific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19(6), 579-584.

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개별 욕구에 충실하거나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영국보다 훨씬 강해 집단적 경직성이나 비유동성이 강하다. 개인의 삶의 영역조차 사회적 기준과 잣대로 비교하며 재단하는 문화에서는 개인의 일탈적 행동과 관련된 충동성, 무책임성, 장기적인 목표 부재, 기생적 대인관계는 늘 억압되기 마련이다(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⁷⁵⁾. 이런 주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지되어 오고 있다(Matsumoto, Kudoh, Scherer, & Wallbott, 1988)⁷⁶⁾.

하지만, 일부 [사이코패시] 증상 [잠재적 특성] 중 기율기(ICC)가 비일관적인 (intersects; 교차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 못 느낌’의 경우 사이코패시 수준이 가장 높을 때 한국 집단의 사이코패스가 오히려 영국집단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의 경우는 그 반대 양상을 보였다. 또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지만 ‘병적인 거짓말’의 경우도 사이코패시 수준이 낮을 경우 오히려 영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즉 일부 사이코패시 증상은 그 수준(높음 혹은 낮음)에 따라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이코패시를 진단하는 경우 비교·문화적인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한국판 PCL-R 절단점과 제안

PCL-R 점수와 관련해서 영국 점수와 한국 점수 간에 직접적으로 대등하다 혹은 이와 유사한 유준에서 유사하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문항반응 이론을 통해 분명 사이코패시를 평가하는 과정에 계량적 차이가 두 문화 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은 분명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문항특성곡선(ICC)과 검사특성곡선(TCC), 소위 문항과 전체적 점수를 각각 나타내는 변별력 지수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다

75) Suh, E.,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82.

76) Matsumoto, D., Kudoh, T., Scherer, K., & Wallbott, H. (1988). Antecedents of and reactions to emo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3), 267-286.

른 패턴을 보이는 것도 분명했고 더 나아가 절편(난위도와 극한성)의 경우도 문화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이코패시] 잠재적 특성(latent trait) 측면에서 똑같은 수준(equivalent standing)을 고려해 볼 때, PCL-R 전체점수, 요인별 점수와 문항 점수에서 한국 집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Cooke & Michie, 1999). 특히 두 집단 간 차별기능검사(DTF)는 전체 점수에서는 비교적 작아보였는데 요인1과 요인3이 가장 커 보였고 상대적으로 요인2는 두 집단 간에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따라서 이는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적 편견이 관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Cooke과 동료들 (1999; 2005a; 2007)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북미와 영국 간에도 똑같은 잠재적 특성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영국집단이 북미집단보다도 낮은 전체점수, 요인점수, 문항점수를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테면 우리와 결과의 비슷하게도 요인1과 요인3에서 가장 많은 차이점이 발생한 반면 요인2 증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단점 혹은 기준점인 26점 혹은 25점은 현재 영국(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25점⁷⁷⁾에(유럽에는 공식적인 절단점이 없음) 비해 오히려 높거나 동일하다. 하지만 3문항을 제외한 10문항에서 차별기능 문항이 존재하고 이 중 문항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확률(점수가)이 낮게 분포한다는 사실은 영국이 적용하고 있는 절단점과 비교할 때 최소한 2점 이상을 낮추어야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단점은 재범예측률을 보고 선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과 유럽, 북미에서 나타나는 개별 문항의 비교·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연구(Patrick et al., 2009; Cooke et al., 2004)에서는 PCL-R의 절단점이나 사이코패시 평가에서 기준점을 두는 것에 상당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⁷⁸⁾. 특히 PCL-R의 경우 일차원성적(unidimensional) 개념이라고 보다는 다분히도 다차원적

77) 영국에서 사이코패시를 연구하는 선두자적 학자인 David Cooke와 Michie 등과 대화(2017.11.18)에서 이전 문헌과 본인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시 절단점으로 25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 점수는 다분히도 연구자마다 구분이 다르며 임의적인 측면이 강해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함.

78) Patrick, C. J., Fowles, D. C., & Krueger, R. F. (2009). Triarchic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Developmental origins of disinhibition, boldness, and meann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3), 913-938.

(multidimensional) 개념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주(category)가 아닌 차원(dimensional)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단순 전체 단일 점수로 나타낼 경우 특별한 의미를 담아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사이코패시 요인과 단면에 따라 똑 같은 점수를 보이는 사이코패스라도 그 특성과 유형이 확연히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인데 기존의 절단점 제시는 오히려 사이코패시의 다양한 해석과 그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자들에 의해 다른 도구들이 제시되고 있다(예, CAPP, TriPM).

3. 결론 및 시사점

국내에서 사이코패시를 측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인 PCL-R은 임상현장에서 2008년 타당화가 되어 사용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이 도구는 북미 특히 대단위 캐나다 수용자 집단을 통해 만들어진 평가도구이기 때문에 동·서양 간 문화적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20개 문항 중 어떤 문항이 차별기능문항인지 또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뭔지를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 오염변인을 찾아 통제하지 않는다면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연구(대표적으로 Hart & Storey, 2013; Cooke et al., 2005; Skeem & Cooke, 2005)를 보면 PCL-R의 4단면(반사회성과 관련된 7개 문항)이 재범예측과 가장 관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이코패스를 진단해 내는 데 있어 그 정보력(정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문헌이 제시하는 사이코패시 개념과 문항 관련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⁷⁹⁾. 반대로 사이코패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서성 이를테면 ‘불안감’, ‘걱정’, ‘두려움’ 등과 관련된 정보력이 높은 문항은 PCL-R 문항에서 빠져 있다. 일각의 연구에서는 순환론적(tautology error) 오류 제시하며 결국 반사회적 행동이 사이코패시 특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행동적 혹은 결과론적 측면 이라며 성격장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행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연구흐름에 주

79) Hart, S. D., & Storey, J. E. (2013). Clinical and forensic issues in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Cooke, D. J., Michie, C., Hart, S. D., & Clark, D. (2005). Searching for the pan-cultural core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2), 283-295.

의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keem & Cooke, 2010a, 2010b⁸⁰).

결국 사이코패시 속성이 강하더라도 반사회성이나 범죄성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PCL-R을 기준으로 볼 때 사이코패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게 되고 설령 사이코패시 특성이 낮더라도 반사회성과 범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자의 임상 경험에서도 사이코패시와 반복되는 면담 과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정서성이 사이코패스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력이 강하고 문화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상가가 요인 2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하며 사이코패시를 진단 할 경우 PCL-R 이외의 다른 진단도구도 함께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대표적으로 PPI-R; Lilienfield & Widows, 2005; 한국판 PPI-R, 이수정과 박혜영, 2009). 또한 다소 상향화 되어 있는 국내 PCL-R 절단점인 25점을 2-3점 낮춰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⁸¹).

마지막으로, 교정 등 심리치료 장면에서 활동하는 [법]임상가들이 PCL-R을 사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점수를 더해 사이코패스 인지 아닌지 분류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지 않기를 바란다. 각 개별 문항이 사이코패시의 독특한 특성을 의미 있게 전달하기 때문에 다차원적 입장에서 개별 증상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기존 PCL-R의 채점 방식은 해당 증상의 특성(trait)과 수준(function impairment)을 심각하게 건파운딩(confounding) 시키기 때문에 증상별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제한점이 있을 수 없다⁸²). 따라서 심리치료의 효과와 증상의 반응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처치고려) 경과 후 사이코패시 특질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코패시 성격장애종합평가(CAPP; Cooke et al., 2012)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⁸³).

80) Skeem, J. L., & Cooke, D. J. (2010a). Is criminal behavior a central component of psychopathy? Conceptual directions for resolving the debate.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33; Skeem, J. L., & Cooke, D. J. (2010). One measure does not a construct make: Directions toward reinvigorating psychopathy research—reply to Hare and Neumann (2010b).

81) Lilienfield, S. O., & Widows, M. R. (2005). PPI-R: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orporated.

82) Hart & Storey, 앞의 논문 참고.

83) Cooke, D. J., Hart, S. D., Logan, C., & Michie, C. (2012). Explicat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nceptual model,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1(4), 242-252.

참고문헌

- 고려진, 손세림, 한상국, & 이수정. (2016).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판 PCL-R 의 예
측타당성 연구. 형사정책연구, 27(2), 263-291.
- 성태제. (2001). 문항반응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성태제. (2005). 교육 평가.
- 이수정 (2013).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
책연구원.
- 이수정, 고려진, & 김재경. (2009).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의 구성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57-71.
- 이수정, 이동길, & 위희정. (2015).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PCL-R 2, 3, 4 요인 모형
타당성 검증. 한국범죄학, 9(2), 3-32.
- 조은경, 이수정 (2008). “한국판 표준화, PCL-R 전문가 지침서” 『심리검사연구소』,
pp 259-295.
- 최이문, 강태경, & 조은경. (2014). 미국 법원에서 심리학 도구 (사이코패시 체크리
스트, PCL-R) 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05~ 2012). 형사정책연구, 25(4),
375-41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4th
edn, Text Revision (DSM-IV-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 Arieti, S. (1963). Psychopathic personality: Some views on its psychopathology
and psychodynamics. Comprehensive Psychiatry, 4(5), 301-312.
- Arrigo, B. A., & Shipley, S. (2001). The confusion over psychopathy (I):
Histor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5(3), 325-344.
- Berrios, G. E. (1996). The history of mental symptoms: descriptive psychopathology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llioud, S. & Joel T. (2015). *The Sage and the People: The Confucian Revival*

- in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 Boduszek, D., & Debowska, A. (2016). Critical evaluation of psychopathy measurement (PCL-R and SRP-III/SF)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4, 1-12
- Boduszek, D., & Debowska, A. (2016). Critical evaluation of psychopathy measurement (PCL-R and SRP-III/SF)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4, 1-12.
- Buss, A. H. (1966). *Psychopathology*. New York: Wiley.
- Cai, L., Thissen, D., & du Toit, S. H. C. (2011). *IRTpro for Windows* [Computer software]. Lincolnwood,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Cleckley, H. (1976). *The mask of sanity* Mosby, St. Louis, Mo.
- Cooke, D. J. & Logan, C. (2015). Capturing clinical complexity: Towards a personality-oriented measure of psychopath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4), 262-273.
- Cooke, D. J. & Michie, C. (1997). An Item Response Theory evaluation of Hare's Psychopathy Checklist. *Psychological Assessment*, 9, 2-13
- Cooke, D. J., & Michie, C., Hart, S. D., & Clark, D. A. (2005a). Assessing psychopathy in UK: concerns about cross - cultural Generalizabilit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 335-341.
- Cooke, D. J., Kosson, D. S., & Michie, C. (2001). Psychopathy and ethnicity: Structural, item, and test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in Caucasian and African American participants. *Psychological assessment*, 13(4), 531
- Cooke, D. J., Michie, C., Hart, S. D., & Clark, D. A. (2004). Reconstructing psychopathy: Clarifying the significance of antisocial and socially deviant behavior in the diagnosi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4), 337-357.
- Cooke, D. J., Michie, C., Hart, S. D., & Clark, D. A. (2005b). Searching for the

- pan-cultural core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283-29.
- Fathi, N. (2004). Taarof [Electronic version]. *Open democracy*. Retrieved September. 24, 2007, from http://www.opendemocracy.net/arts/article_2117.j.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Hare, R. D. (2003).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2nd 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Hart, S. (2012). New Direction for the psychopathy treatment. 2nd Bergen Conference on the Treatment of Psychopathy. Bergen, Norway; Hart, S. (2015). Violence in Korea. Annual KPA conference. Seoul, Korea.
- Hart, S. D. (2009). Psychopathy, Culpability, and Commitment. *Mental Disorder and Criminal Law*, 159.
- Hart, S. D., & Cooke, D. J. (2007).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E. Smonsén, E. Ronningstam, & T. Millon (Eds.), *WPA/ISSPD educational program on personality disorders (pp. 60-66)*. Geneva, Switzerland: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Retrieved from www.wpanet.org/education/docs/isspeduprogrammarch07.
- Hart, S. D., & Storey, J. E. (2013). Clinical and forensic issues in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 Hart, S. D., Cox, D. N., & R [obert] D. Hare. (1995).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PCL: SV)*. MSH-Multi-Health Systems, Incorporated.
- Hobson, J., & Shines, J. O. H. N. (1998). Measurement of psychopathy in a UK prison population referred for long-term psychotherap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8(3), 504-515.
-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Vol. 2). London: McGraw-Hill; Cooke D. et al. 앞의 연구 참고

- Karpman, B. (1961). The structure of neurosis: With special differentials between neurosis, psychosis, homosexuality, alcoholism, psychopathy, and criminality. *Archives of Criminal Psychodynamics*, 4, 599 - 646.
- Kitayama, S., & Uchida, Y. (2005). Interdependent agency: An alternative system for action. In *Cultural and social behavior: The Ontario symposium* (Vol. 10, pp. 137-164). Lawrence Erlbaum Mahwah, NJ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68-579.
- Marshall, L. A., & Cooke, D. J. (1999). The childhood experiences of psychopaths: A retrospective study of familial and societ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3), 211-225.
- Matsumoto, D., Kudoh, T., Scherer, K., & Wallbott, H. (1988). Antecedents of and reactions to emo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3), 267-286.
- McCarty, C. A., Weisz, J. R., Wanitromanee, K., Eastman, K. L., Suwanlert, S., Chaityasit, W., & Band, E. B. (1999). Culture, coping, and context: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among Thai and American youth.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5), 809-818.
- McCord, W., & McCord, J. (1964). The psychopath: An essay on the criminal mind.
- Ng, F. F. Y., Pomerantz, E. M., & Deng, C. (2014).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85(1), 355-369.
- Patrick, C. J., Fowles, D. C., & Krueger, R. F. (2009). Triarchic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Developmental origins of disinhibition, boldness, and meann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3), 913-938.

- Raine, A. (1993). *Psychopathology of crime*. Elsevier Science.; Raine, A., & Yang, Y. (2006). Neural foundations to moral reasoning and antisocial behavior.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3), 203-213;
-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51.
- Roju, N. S., Van der Linden, W. J., & Fleer, P. F. (1995). IRT-based internal measures of differential functioning of items and test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4), 353-368.
- Samejima, F. (1997). Graded response model. In *Handbook of modern item response theory* (pp. 85-100). Springer New York; McDonald, R. P. (1999). *Test theory: A unified treatment*. Mahwah, NJ: Erlbau.
- Shariat, S. V., Assadi, S. M., Noroozian, M., Pakravannejad, M., Yahyazadeh, O., Aghayan, S., & Cooke, D. (2010). Psychopathy in Iran: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4(5), 676.
- Shou, Y., Sellbom, M., & Han, J. (2016 b).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nes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0(4), 436-450.
- Shou, Y., Sellbom, M., & Xu, J. (2017).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An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DOI: 10.1037/per0000241.
- Skeem, J. L., Edens, J. F., Camp, J., & Colwell, L. H. (2004). Are there ethnic differences in levels of psychopathy? A meta-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28, 505-527.
- Sohn, J. S., & Lee, S. J. (2016). Investigating two-, three-, and four-factor structures of the Korean PCL-R in serious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0(6), 725-738;
- Sohn, J. S., Lyons, P., Menard, S., & Lee, S. J. (2017). Testing the three-and

- four-factor models of the Korean version PCL-R as predictors of two antisocial outcomes - recidivism and risk. *Psychology, Crime & Law*, 23(5), 472-486.
- Suh, E.,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82.
- Susser, M. (1973). Causal thinking in the health sciences concepts and strategies of epidemiology. In *Causal thinking in the health sciences concepts and strategies of epidemiology*.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Tay, L., Meade, A. W., & Cao, M. (2015). An overview and practical guide to IRT measurement equivalence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8(1), 3-46.
- Thissen, D. (1991). *Multilog User's Guide (Version 6)*. Moo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Thissen, D. & Steinberg, L. (1997). *A response model for multiple-choice items* (pp. 51-65). Springer New York.
- Ullrich, S., Paelecke, M., Kahle, I., & Marneros, A. (2003). Categorical and dimensional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German offenders. Prevalence, gender differences and age factors. *Der Nervenarzt*, 74(11), 1002-1008.
- Uno, T. (1991). *Chinese Ideology*, Translated by H. Park. Seoul, South Korea: Daewon .
- Waller, N.G., Thompson, J. S. & Wenk, E. (2000). Using IRT to separate measurement bias from true group difference on homogenous and heterogeneous scales: an illustration with the MMPI. *Psychological Methods*, 5, 125-146.
- Weisz, J. R., Suwanlert, S., Chaiyasit, W., & Walter, B. R. (1987). Over-and undercontrolled referral problem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the wat and wai of cultural differ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9.
- Werlinder, H. (1978). Psychopathy: A History of the Concepts: Analysis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Family of Concepts in Psychopathology
(Doctoral dissertation,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The ICD-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clinical descriptions and diagnostic guidelines (Vol.
1). World Health Organization.

Yamagishi, T., Hashimoto, H., & Schug, J. (2008). Preferences versus strategies
as explanations for culture-specific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19(6),
579-584.

The Generalizability of PCL-R based on IRT: How the psychopath is shaped in Korean culture?

Sea, Jong-han*·Lee, Soo-jung**·David J. Cooke***

The current study aimed to analyze the metric equivalence of PCL-R between UK and Korea. Until now, many previous studies has also reported that psychopathy ratings of offenders among other countries made using PCL-R were not metrically equivalent with each other, finding differential item function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by comparing ratings from a number of Korean offenders to those from United Kingdom. Overall, the findings suggested the presence of a significant culture bias in PCL-R ratings. For example, cross-cultural stability was comparatively highest for symptoms related to deficient affective experience (factor2), suggesting that they may be the pan-cultural core for the disorder as well as provide highest information to distinguish the psychopath in Korea. These results may have cultural implications for the cross-cultural comparison research based on the PCL-R and the clinical and diagnostic application of the PCL-R in Korea.

❖ Keyword: Psychopathy, IRT, Cross-cultural, Measurement problems, PCL-R

투고일 : 11월 27일 / 심사일 : 12월 15일 / 게재확정일 : 12월 15일

* Correspondence author: Senior researcher, Mental Health, Law, and Policy Institute,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Simon Fraser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Psychology,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